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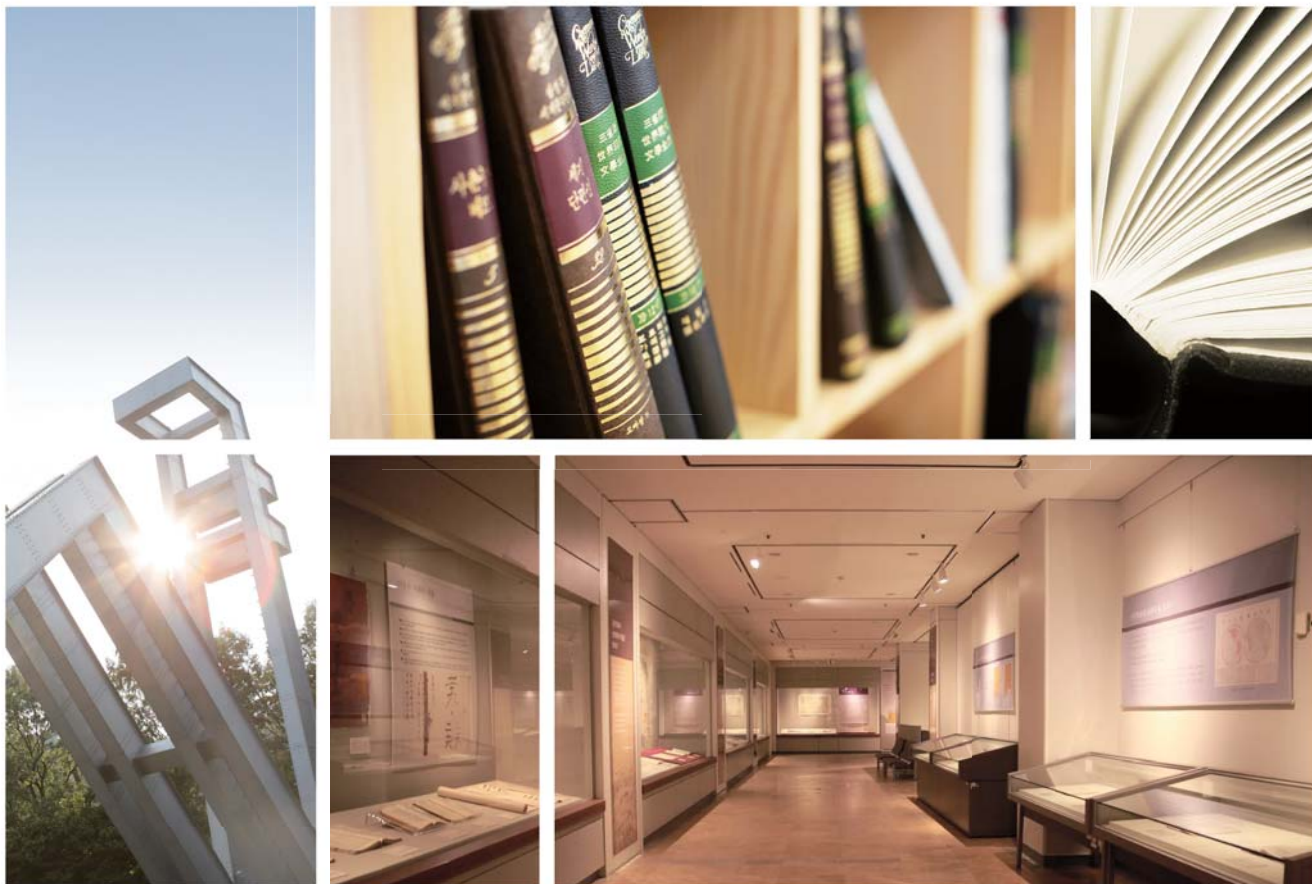
Ad Fontes Program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제17기





Ad Fontes

AFP 관련 문의처

전화 02)880-2570

팩스 02)871-0064

홈페이지 www.snuafp.com

주소 (151-0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5동 213호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제17기

AFP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지도자과정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CONTENTS

- 04 제17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열며
- 06 *Ad Fontes* Program
- 07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개요
- 08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교육일정
- 10 인문학의 향연을 이끄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 12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수료자 추천의 글
- 14 수업안내
- 15 입학안내

제17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열며



장재성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인문학은 삶과 사람 그리고 사랑이 하나가 되는 학문입니다. ‘삶’을 풀어보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삶’ 속에서 모가 닳으면 ‘사랑’이 됩니다. 인문학적 사유의 근원인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넘어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학문인 인문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지도자들을 인문학의 향연으로 초대하는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이 벌써 17기를 맞이합니다. 이 과정은 인문대학에 2007년 9월에 개설된 이래 우리 지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을 거치며 우리 국민들이 경제성장에 매진하면서 물질적 풍요에 주력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제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사고의 전환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삶의 주된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물질에서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를 비롯해 삶에 관한 근원적 주제를 다룹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은 Ad Fontes Program, 즉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명칭 아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치중합니다.

그렇지만 인문학은 하나의 해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이 바라는 것은 수강생들 스스로 인문학적 사유를 증진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인간적 본질에 다가는 것입니다.

제17기 수강생 여러분은 앞으로 20주 동안 “원천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가지며, 인류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과 저술을 중심으로 삶에 관한 근원적인 주제를 놓고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그런 주제를 천착해온 권위자들을 초청해서 친절하고 세심하게 여러분의 탐구를 돕겠습니다. 인문학 여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d Fontes Program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으로 인식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지상주의의 그늘 속에서 한때 인문학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는 무관한 비실용적 학문으로 간주되고 외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날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CEO들과 대중들의 많은 관심은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의 필요성 및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의 지혜, 통찰력,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분야를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들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우리 사회 각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9월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내용은 본 과정의 수료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언론과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 월등한 차별성과 수월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제공하는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 사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에너지와 비전, 그리고 진정한 인문학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문대학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17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개요

› 교육목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인간과 문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 성찰 능력과 윤리 정신, 다문화적 감수성과 포용력을 함양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의 자질을 기른다.

› 교과과정

- 지성과 감성을 가진 인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
-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
-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수
- 사회적 가치와 내면적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 문화 변동과 미래 사회에 대한 거시적 통찰

› 주임교수단

- 주 임 교 수: 장재성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부주임교수: 김창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AFP) 프로그램

8월 25일	입학식	
9월 1일	중국과의 역사 전쟁	국사학과 송기호
	훈민정음	언어학과 김주원
9월 8일	AFP 부주임 교수 강의	
	미학의 이해	미학과 이해완
9월 15일	조선시대 양반의 경제활동	국사학과 김건태
	사단칠정논쟁의 이해	철학과 정원재
9월 19일 -20일	국내탐방 - 안동탐방	
9월 22일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16억 인구의 정신세계, <꾸란>	종교학과 배철현
9월 29일	휴 강	
10월 6일	스토리텔링 진화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이인화
	바이올린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기악과 백주영
10월 13일	교내탐방 - 규장각 탐방	
	조선왕조실록	규장각 강문식
10월 20일	중국 시	한국방송통신대학 김성곤
	시와 자연	불어불문학과 이건우
10월 27일	메이지유신	동양사학과 박 훈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규장각 김시덕

10월 30일 -11월 1일	해외탐방 - 일본탐방	
11월 3일	휴 강	
11월 10일	과학 소설의 과거와 미래	영어영문학과 이동신
	프랑스 현대철학	철학과 김상환
11월 17일	김홍도 - 거장의세계	고고미술사학과 장진성
	시조와 공감의 미학	국어국문학과 조해숙
11월 24일	이천년을 함께한 비단실의 소리 - 가야금	국악과 이지영
	석굴암	국사학과 남동신
12월 1일	전체기수합동강의	
	문학과 인생	국문학과 오세영
12월 8일	공 연	
	동양 최고의 고전 - 논어	중어중문학과 이강재
12월 15일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도력	서양사학과 배영수
	러시아의 정신과 도스토예프스키	노어노문학과 박종소
12월 22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서어서문학과 김창민
	행복한 삶의 조건	심리학과 최인철
12월 29일	도덕경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휴 강	
1월 5일	보고서 발표	
	유럽, 그 언어와 문명의 기원을 찾아서	불어불문학과 장재성
1월 12일	수료식	

인문학의 향연을 이끄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AFP)

Soul-searching through humanities

Popularity of the liberal arts drives people and businesses to return to classic books and attend related classes



Participants of Seoul National College of Humanities' Ad Fontes Program hold up their textbooks during a class on Tuesday.
(Park Hyun-koo / The Korea Herald)

Every Tuesday, a group of corporate executives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ttend a lecture on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gram, named "Ad Fontes," a Latin expression meaning "to the sources," challenges the students in their 50s and 60s with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The students have to tackle the fundamental issues surrounding historic figures and influential books while absorbing knowledge from a diverse spectrum of studies from Oriental philosophy to literature.

The first hour of the lecture on May 21 was led by Kim Jin-yup, an aesthetics professor at SNU, who explained how art can heal psychological trauma. The professor introduced Sigmund Freud's psychoanalysis of two artworks by Leonardo da Vinci, "The Mona Lisa" and "Virgin and Child with St. Anne," in connection with the artist's childhood memories.



Students listen to a lecture on evolutionary psych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Hyun-koo / The Korea Herald)

Not a single phone call was made during the lecture. Absentees are rare.

"Many of us have been living in a harsh working environment and fierce competition. But now I enjoy emotional well-being and regain my composure by learning about humanities, which have long been forgotten in my life," said Kim Young-chul,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of Hana Bank and one of the 43 participants of the program.

Bae Young-soo, dean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t SNU, said he used to be skeptical about opening such a course. The popularity of books and television shows on humanities also seemed to be a passing fad, he said.

"I think this trend may signify a huge turning point in society as I found out that many students attending this course are eager to resolve serious concerns through self-reflection as they dig into the study of humanities."

However, the dean said that the popularity cannot be considered a revival of broader humanities in Korea. "I would rather say it is a rebirth of public interest in the humanities."

Park Han-na, 2013-5-24 The Korea Herald



“인문학적 지혜와 통찰력 불어넣는 최고지도자과정”

서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2007년 개설돼 642명 수료, 문·사·철 아우른 강좌 “인간관계 중시되는 기업경영에 도움”



서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인문학적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최고위과정이다. 지난 달 10일 김주원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가 ‘humanity’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대 인문대학)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은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설됐습니다.”

인문학은 최근 ‘인구론(인문계 출신 10명 중 9명은 논다)’란 말이 화자될 정도로 대학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꼭 필요한 학문이란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사·철(文·史·哲)로 대변되는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서울대 인문대학은 이런 점에 주목, 인문학 분야에서도 최고지도자 과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재성 인문대학장은 “결국은 기업 경영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며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운영하면 우리사회가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문화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우리문화에서 세계로 시야 넓히도록 구성

서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은 영문명으로는 ‘AFP’다. ‘Ad Fontes Program’의 약자다.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장 학장은 “그간 우리 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인문학이 외면 받아 왔지만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어 지금은 오히려 인문학적 상상력이 중시되고 있다”며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적 지혜와 통찰력, 종합적 판단능력은 사회·문화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중간 생략)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교수들이 직접 강의 하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들도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한다. 장 학장은 “대부분 아침 일찍 출근해 일하고 난 뒤 저녁에 강의를 들으러 오는데 졸린 눈으로 수업을 듣는 분을 보지 못했다”며 “강의 뒤 질의응답 시간에도 진지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나와 놀랄 때가 많다”고 귀띔했다.

◆ “인문학적 통찰력에 초점” … 기업인·법조인 등 수강생 다양

‘인문학적 지혜와 통찰력’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 대부분이어서 강의의 중상식과 다른 역사적 진실을 접하는 경우도 많다.

장 학장은 “예컨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서 1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당시 청나라의 군사 전부를 합쳐봐야 5만2000명 정도였다”라며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전달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AFP는 2007년 개설돼 그간 15기 64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인문학과 교양을 다루기 때문에 수강생은 기업 경영인부터 회계사, 법조인 등 다양하다.

주요 동문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장창현 한맥중공업 회장 △문인식 바바패션 회장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동철 에스오일 수석부사장 △송치호 LG상사 대표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이하 생략)

2015-4-27 이데일리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수료생 추천의 글

AFP 1기 김병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前 기획예산처 장관)

뒤늦게 예순넘어 주위의 권유로 참여한 AFP 1기 과정에서의 인문학 공부가 경제분야에서 살아온 나의 삶을 확 바꾸어 놓았다. 수료 후, 나는 지금 4년째 안동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선현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현대인에게 심어주려고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있으니 말이다.

AFP 6기 김동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초대소장** (前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와 판단이 필수적이다. 나는 오늘 저녁 과거 르네상스의 인문학자인 마키아벨리가 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서재에서 인문학과 벗하고자 한다.

AFP 6기 윤재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前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인문학적 시각이야말로 역동적인 재판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재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AFP 7기 김형오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前 국회의장)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인들도 인문학에 허기와 갈증을 느껴야 한다. 인문학의 식탁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인문학의 샘터에서 메마른 목을 축여야 한다....이제 나는 가을 산의 오솔길을 걷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에 오코통 속에서 오래 숙성시킨 와인의 향기로움까지 더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AFP 9기 하영봉 **GS E&R 대표이사**

치열한 경쟁과 메마른 사업환경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문학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인 풍요와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가던 사업현장에서도 인간의 본성,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더욱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면서 본과정을 많은 기업인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AFP 11기 이경현 **GS E&R 대표이사**

100m 스프린터들의 화력함보다 42.195Km를 끊임없이 달리는 미련스러움이 더 감동을 주 듯, AFP는 스피드 경쟁에 지쳐 화력함 뒤에 허탈해진 자화상을 들여다보게 하며,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묵묵히 생각해 합니다. AFP에는 여백이 있고 우직한 벼이 있고 그러면서도 새로움에 대한 폭발력이 내재되어 있어 참 좋습니다.

AFP 11기 강호문 **(주)삼성전자 부회장**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와 삶의 특별한 이야기들 속에서 인문학의 깊은 매력이 느껴집니다. “學然後知不足 敎然後知困 故曰敎學相長也”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는 禮記에 나오는 문구가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목표 달성에만 매여 있던 경영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더해 주는 본 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AFP 12기 문인식 **바바패션 회장**

경영인으로서 변화와 혁신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그 무엇을 찾지 못해 늘 안타까워했었다. 그 답은 바로 내 옆에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문학은 언어의 공장, 역사는 경험의 공장, 철학은 초월의 공장이라 한다.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인들이 역사를 통해 지혜를, 철학을 통해 논리를, 문학을 통해 창의성을 얻어 가시길 추천한다.

AFP 12기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 거칠어 진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은 사회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가면 무도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 따뜻하면서도 인정 넘치며 마음편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인문학 과정을 추천합니다.

AFP 13기 김동철 에쓰-오일(주) CEO Deputy

AFP과정에서 저는 삶의 고민의 해법을 어렵듯이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열정적인 강의로 문학, 역사, 철학은 물론이거니와 종교,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훑어 보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보려는 새로운 여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것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FP 13기 박세훈 (주)엘티에스코리아 회장

물질 문명의 발달로 간과되고 소외되었던 정신 문명의 회복과 양양이 필요한 때,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의 강의는 조화와 균형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며 이를 통해 현대인에게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AFP 14기 박승하 현대제철 고문

근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은 말경기로 비유하자면, 속력을 요구하는 Racing 경기에서, 민첩성과 다양한 기량을 요구하는 Polo 경기로의 변화로 비유되겠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자의 사고전환과 유연성 있는 경영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잘 짜여진 Program과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AFP과정은 나의 사고 전환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께도 적극 권장하고 싶다.

AFP 14기 이춘호 EBS 이사장

인문학의 향기에 빠져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새로운 나를 보고 싶어서 찬바람 가르며 정말 다니고 싶었던 서울대 캠퍼스에 왔습니다. 진하도록 열심히 공부시키는 교수님들의 레이저 눈빛 속에 빠져들면서 나도 모르게 화요일 오후만 되면 관악산 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간들... 이전 험한 바다를 혼자서도 신나게 노 저을 수 있는 힘과 좋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더 큰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인문학에서...

AFP 14기 최 건 대교디앤에스 대표이사

그간의 회사생활이란 정말 앞 뒤 되돌아볼 겨를 없이 지내왔다. 이제 겨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뜻에서 AFP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선현들의 사상, 가르침의 큰 흐름을 접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깊은 공부의 밑거름이 되겠고, 내 삶의 내용도 풍요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AFP 15기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표출은 인문학적 지혜로 이해될 것 같다. 경영자로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경영에만 몰입해왔으나 본 과정을 통해 경영의 주체인 사람의 인성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였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문학, 철학, 예술, 역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에 필요한 심리탐구, 사고의 유연성, 창의력, 자기성찰 등 경영리더십을 다양한 각도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AFP 15기 양재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분야에선 열심히 살아 왔고 성취했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상대적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제 장년의 방향은 쓰레기통에 던져 넣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당신이 택한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십시오. 어릴 적 만화를 볼 때 시간이 달려갔듯이 AFP의 강의 시간에는 無我之境에 빠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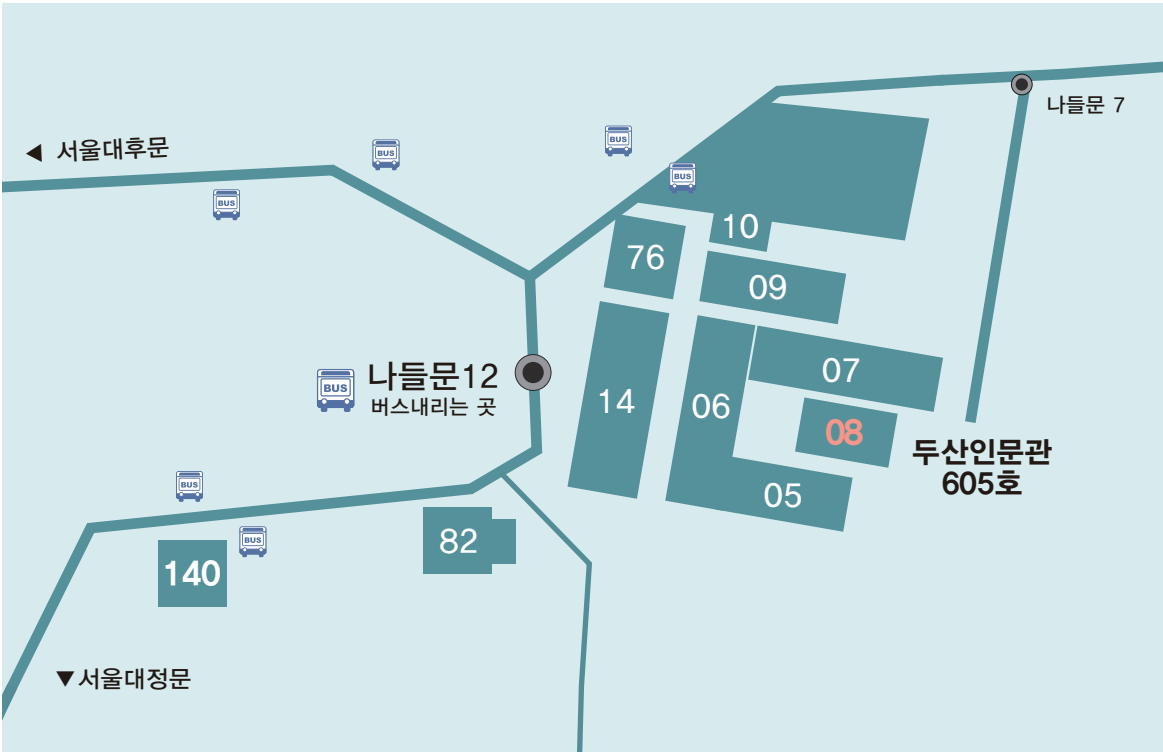
3의 理性을 느낄 수 있는 제3의 모임에서 인문학과 사업의 융합을 실현하는 것이 21C 陶朱公의 목표라면 믿으셔야죠?!

AFP 16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오랫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숫자로 표현되는 메마른 목표를 추구하며 바쁘게 살아오며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역사, 철학, 예술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경험을 다양한 인문강의를 통해 삶의 기본과 대비해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며 인생 80시대에 대비해 앞으로도 사유세계를 소요하며 예술적 감각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나 자신을 위한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할 에너지를 충전 받게 되었다.

수업 안내

교육기간	2015년 8월 25일(화) ~ 2016년 1월 12일(화)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8:30 ~ 21:40(1일 2강좌) 국내 워크숍(1박2일) 1회, 국외 워크숍(2박3일) 1회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8동 두산인문관 605호 보름홀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8동 605호



입학 안내

모집인원	45명 내외
입학자격	<p>인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사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업체 CEO(회장.사장.임원) - 정부 고위 공무원/부장급 이상 판.검사/국회의원/장성급 장교 - 교수/금융인/언론인/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p>※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p>
이수요건	출석 3분의 2 이상 / 기말보고서(에세이)
모집기간	2015년 7월 13일(월)~8월 7일(금)
제출서류	<p>1) 온라인 지원서(AFP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p> <p>2)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p> <p>3) 증명사진(반명함판 규격, 150Kb 이상의 JPG또는 PNG파일)</p> <p>4) 자기소개서 또는 기관(회사) 안내 자료</p> <p>5) 최근 2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1부.</p> <p>※ 5)는 중소기업체 혹은 비상장 기업에 해당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지원접수 인정</p> <p>※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p>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p>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www.snuafp.com)에서 온라인으로 입력</p> <p>※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 가능▼</p> <p>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5동 213호</p> <p>이메일: apply@snuafp.com(AFP사무국 입학전형 담당자)</p>
합격자발표	2015년 8월 11일(화) 개별 공지
등록기간	2015년 8월 12일(목) ~ 18일(화)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Ad Fontes Program

제17기